

공동체와 문화 I.

전통은 중요하지만 전통으로 인한 편견은 새시대를 열지 못합니다.

1. 문화

문화는 삶이다. 그래서 한 번 형성된 문화는 중요하다. 이것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문화를 일으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문화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과정이 있다. 마치 출산을 앞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과정의 상태가 문화의 성격과 정체성을 만든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문화를 일으켜야겠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와 세대속에서 교회의 문화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답을 찾아야 한다.

2. 새로운 문화가 일어날 때

(1) 충돌 : 전통 VS 새로운

문화에는 단계가 있다. 아이가 성장할 때의 삶이 다르듯이 모든 문화에는 단계가 있다.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의 문화가 다른 이유이다. 시대와 세대의 요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필요를 채우며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 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며 발전해 왔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팩트'이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변하는 시대에 발 맞추어 '변화'를 요구한다. 그 때 일어나는 '충돌'(옛것과 새로운 일)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교회는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교회가 일으켜야 할 문화에 대한 핵심이다.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분리해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함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의 문화를 사용하신다. 문화가 삶이기 때문이다. 삶의 가치, 세계관 등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문화를 존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고, 사람의 삶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언제나 '충돌'이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붙잡고 있었던 문화와 충돌하셨다.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 있었던 종교화 된 문화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충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2)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

그렇다면 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 모델이다.

ㄱ) 충돌의 경험을 가진 자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 새롭게 열고 싶어하는 복음의 문이 있었다.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문이었다. 이방인들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셔야 했다. 그래서 충돌을 주셨다. 베드로에게 보여 주셨던 율법으로 금기했던 음식에 대한 환상이다. 베드로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에 강력하게 충돌했다.

[사도행전 10:14-15]

14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15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의 저항은 당연하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때, 우리안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저항을 존중해주신다는 사실이다. 강제로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지만, 충돌의 과정을 만드셔서 과정을 중시해 주신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의 과정은 당연하다. 반대의 의견, 저항의 마음 당연하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

ㄴ) 충돌을 생각해 보는 자

[사도행전 10:17-19]

17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18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19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주목할 말씀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대체 무슨 뜻일까?',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라는 말씀처럼 자기가 아는 것으로 단정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왜 충돌이 있었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는 사람이다. 성령의 음성이 바로 그 순간에 들려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충돌을 경험할 때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 먼저 단정 짓는다. 그리고 벽을 쌓아놓고 듣지도 않는다. 자신이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것만 듣는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 듣는마음, 열린마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에게 길이 보이는 것이다.

ㄷ) 이해되지 않지만 움직여 보는 자

[사도행전 10:23]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묵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읍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이 자기문화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기를 찾아온 고넬료의 하인들을 따라 움직여 보았다. 바로 이 태도가 중요하다. 움직여야 한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생각속에서 돌파되지 않는다. 움직여야 알 수 있다. 영은 생각안에 있지 않다. 영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다. 실재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가? 움직여야 한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항상 새 일이 일어난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바로 그의 '움직임'에 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인의 뜻, 영적인 영역) 과정이다. 출애굽의 과정을 기억하라. 가나안은 움직이는 자에게 주어졌다.

ㄹ) 편견이 없는 사람 (상황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사람)

[사도행전 10:28-29]

28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29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0:34-35]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35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0:45]

45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 사실에 놀랐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상황을 따라가는 유연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28절의 베드로는 그가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들의 말을 경청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의 생각안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34절에 고백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 주신다.' 놀라운 고백이다. 편견없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본질을 보는 사람이다.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위대하다. 그가 학식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할 수 있는 유연함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있었다. 편견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결국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문이 열렸다. 이 사건이 초대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실재적 증거가 된다.

3. 공동체 문화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공동체 회의가 있다. 이 회의가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향해 여시는 새로운 문 앞에서 제자들 모두가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출산했다는 것이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안건자체를 논의한다는 것이 성숙함이다. 고민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고넬료 집의 성령강림 사건이다.

실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린다. 말만 하고, 비전만 있고, 분석만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족하지만 실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언권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은 비판이 아니라 대안이다.

이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돌과 깨어짐, 그리고 순응과 따라감의 과정을 지닌 자들이 많아져야 사도행전 15장의 새로운 차원이 문이 열리게 됨을 명심하라.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 아니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다. 그것이 진짜 고민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더 민감하게 귀를 열어 경청해야 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응답을 얻는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

이제 조이풀은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공동체 안에 증가되기를 바란다.